

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설 맞이 복지시설 위 문품 전달

✎ 김철희 기자 | ㉠ 승인 2026.02.12 22:35

성심요양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전달, 나눔 활동 지속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구미김천지사 제공

[구미(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가 12일 오는 설을 맞아 관내 복지 시설인 구미 선산 소재 성심요양원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위문을 실시했다.

구미김천지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꾸준한 위문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달된 상품권은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재료 및 생활용품 구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나창식 지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